

신미년 소망

병없고 근심 걱정없이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 모두의 궁극적인 욕망이다. 국내에서도 이런 욕구는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국민들의 조기 건강 검진 필요성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또 상당수준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인 현상이라고나 할까, 필자의 눈에는 국민 소득이 낮았던 예전보다 건강치 못하다는 사람이 더욱 많아진 것 같고 또 소식으로 듣고 있는 요즈음이다.

잘못된 판단으로 귀결될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혹시나 이것이 조기 건강검진에 따른 적극적 치료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그래도 커다란 위안으로 삼을 만하다.

따라서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 조기 발견에 이은 적극적 치료 과정 중의 환자가 많다는 얘기라면 소극적 치료 방법이 자칫 야기시킬 수 있는 만성질환 유행 국면보다는 희망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가볍게 생각하는 데 있다. 만성질환으로 변화

기 전의 적극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또 자신의 신체가 건강하다는 확인에서 올 수 있는 사회적 자신감을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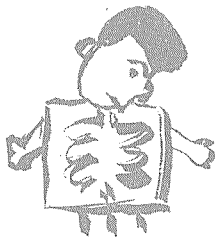
혹시 국내의 건강 검진 시스템이 외국의 것을 모방한데서 오는 너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따라서 전국적인 지부를 통해 대국민 접촉이 빈번한 건강관리협회에서 그동안의 건강검진에 대한 결과를 놓고 지역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따른 질병 발현을 분석한다면 국내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건강검진시스템을 고안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또 국민에 대한 건강검진 홍보 측면이나 보건교육 측면에서 건강관리협회 만큼 대국민 접촉이 많은 보건 단체가 없는 실정을 감안해, 기존의 사업을 더욱 공고히 하여 날로 문제되는 성인병, 만성병 등 국내에서 문제되는 질환 및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대책이 새해에는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필자=의학신문사기자〉

“우리 실정에 맞는 건강검진 시스템을 개발하라”



노 학 래